

특집 : 성령과 삶

신오순절 운동

고 재 수
(부교수, 교의학)

I. 머릿말

신오순절 운동에 대한 문현을 연구해볼 때 눈에 띄는 것은 이 운동이 생각보다 다양한 양상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 운동을 묘사하고자 할 때 통일된 모형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림을 그릴 수 밖에 없다. 그 결과로 이 글에서 이 운동의 전모를 다 밝힐 수도 없고 또한 이에 대한 완전한 평가를 내릴 수도 없다. 다만 우리는 그 중심 주제를 찾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이 평가의 표준은 성경적 교리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이 있다고 말한다. 그 교훈은 하나님의 복음에 따르는 것이고 바울에 의해 전파되어지는 것이다(딤전 1:11, 딤 1:9). 이 교훈에 따라서 디모데와 디도도 전파하여야 한다(딤전 4:6, 16, 딤 1:9, 2:1, 7). 그리고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은 거부해야 한다(딤전 1:10, 6:3, 딤후 4:2, 3, 딤 1:9).

이 신오순절 운동이 우리가 받은 교훈에 따르는 것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겠다. 가급적이면 그들 자신의 글을 많이 인용해 보겠다.

2. 신오순절 운동의 역사

대체로 신오순절 운동의 시작은 1960년대 성공회 목사인 데니스 베네트(Dennis Bennett)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전에도 개신교회의 신자들이 이러한 체험을 하고 또 방언을 하였지만 공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¹⁾ 그러나 베네트목사를 중심으로 한 사건은 신문

*이 글은 고신대학 신학대학원의 이론신학회에서 1984년 11월에 행한 강의를 개정한 것이다.

1) M.T.Kelsey, *Tongue Speaking*, p. 102이하, 또 J. Th. Nichol, *Pentecostalism*, p. 240.

과 TV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베네트목사의 경험은 이런 것이다. 자기와 다른 친구가 함께 시무하는 교회에서 어떤 한 부부는 자주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매 주일마다 참석하고 십일조까지도 내었다. 친구 목사가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들은 성령의 체험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그 부부를 중심으로 12명이 모여 한 그룹이 구성되었고, 이에 두 목사는 함께 그 그룹의 행동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그들은 아직까지 이런 체험들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두 목사는 그 그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러 주간 동안 그들과 같이 성경공부를 하였다. 그때 베네트목사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그에게는 없는 것, 곧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도 같은 체험을 얻기 위해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다. 두번째는 짤막하게나마 방언을 하였다. 세 번째에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서 말이 나오도록 격려했다. “갑자기 나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분명해졌다. 완전히 분명해졌다. 그전에 삶 속에 한번도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성령 하나님인 말들을 내 입술에 담아주고 계셨음을 알았다.” 베네트목사는 그 그룹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그리스도인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라 말이지!”²⁾

베네트목사가 이 체험을 교회에 밀했을 때 논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베네트목사는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다른 교회로 옮겨야 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교회 안에서 몇몇 신오순절 그룹들이 생겨났다.

베네트목사를 위시하여 일어난 이런 사건은, 오순절 그룹 안에 이미 있어 왔던 체험과 같은 것이 개신교 교단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전국으로 알려진 결과가 되었다. 그 이후로 비슷한 사건들이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와 루터파 교회 안에도 일어났다는 보고가 나왔다.³⁾

이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도 이런 체험이 일어났다. 피츠버그에 있는 Duquesne대학에서 1966년에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 이 대학의 교수 몇 사람이 신앙생활의 공허감을 느끼고, 기도생활과 행위면에서도 힘이 빠져나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들은 신약과 특별히 성령에 대한 부분과, 초대 교회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읽어 보았다. 그래서 성령이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내려오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때 성공회교회 안의 어떤 신오순

절 그룹과 접촉하게 되었다. 교수 두명이 그들의 모임에 참석했고 그룹이 그들과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다. 그룹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재촉했다. Ralph Keifer교수는 이어 일어난 체험을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조금 빠르게 방언으로 기도했다. 이것은 아주 고양되거나 장관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다. 나는 어떤 평화를 느끼고 기도하는 마음도 좀 있었으며 또 솔직히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이를지 호기심도 있었다.” 한 주간 후에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암수하였고 그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⁴⁾

그 이후로 신오순절 운동은 미국 로마 카톨릭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수만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체험을 하기에 이르렀다. 동일한 일이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의 카톨릭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서도 많은 오순절식 모임이 열리고 있고 로마의 성베드로성당에서도 방언과 예언의 미사를 드리게 되었다.⁵⁾

또 다른 새로운 발전이 일어났는데, 곧 독일의 목사인 A.Billenberger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신오순절 계통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신오순절 운동의 많은 사상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독일에 돌아가서는 빌렌베르거목사가 이 운동을 그곳에 소개하였다. 그 결과로 동서독일에서 정규적으로 모이는 그룹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방언과 예언, 신유가 있다고 한다.⁶⁾ 독일 그룹들의 특징은, 신약의 학문적 연구가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신약에 대한 학문적 발전을 감추지 않는다고 말한다.⁷⁾ 즉 그들은 계속적으로 고등비평 방법을 사용해서 신약을 연구한다.

이 운동은 이제 미국과 유럽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 각 대륙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 신오순절 운동은 그 기원을 살펴볼 때 오순절 운동과 연결되어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오순절과 사람들이 쓴 책들은 성령의 체험과 은사에 초점을 모으고 있었다. 오순절과 사람들은 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의 생각을 활발하게 펴트렸다. 그래서 성령세례의 체험을 하게된 신오순절과 사람들은 오순절 그룹 안에서 처음으로 그런 체험을 하였던 것이다.⁸⁾

4) K. & D. Ranaghan, *Catholic Pentecostals*, pp. 7-16.

K.Ranaghan과 D. Ranaghan부부는 Duquesne 대학의 교수들 모임 중의 일원이었다.

5) W.Kasper, *Gegenwart des Geistes*, p. 28.

6) W.J.Hollenweger, *The Pentecostal*, p. 245이하.

7) *ibid.*, p. 249, 참고 §. 21, pp. 291-310.

8) Kelsey, *Tongue Speaking*, p. 102, 110. Hollenweger, *The Pentecostals*, p. 6이하, p. 186, Ranaghan, *Catholic Pentecostals*, p. 9이하, Nichol, *Pentecostalism*, p. 241.

2) Kelsey, *Tongue Speaking*, p. 98이하. 웰시는 이 이야기를 베네트목사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한다. (p. 98)

3) R.H.Culpepper, *Evaluating The Charismatic Movement*, p. 9.
J.F.MacArthurJr., *The Charismatics*, p. 13.

그러나 한편 신오순절파와 오순절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오순절파에서는 그들 자신의 그룹이나 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속했던 교회를 떠나거나 끌어냈다. 그러나 신오순절파는 그들이 속한 교회 안에 그대로 머물면서 교회 안으로부터 활동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바꾸지는 않고, 다만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덧붙일 뿐이다.⁹⁾

처음에는 오순절파와 같은 체험을 한 그룹들은 신오순절파라 불리워졌지만¹⁰⁾ 오순절파와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은사운동' (charismatic movement)이라 이름하기를 더 좋아한다.¹¹⁾ 이 운동의 의도는 기성 교회 안에 오순절의 불을 붙이자는 것이다.

3. 사상

신오순절 운동의 중요한 사상을 개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 글의 제약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신오순절 운동이 하나의 단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견해들이 있다. 앞서 우리는 그들이 속한 교회의 교리에 그들의 체험을 첨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래서 교리적 문제에 대한 그들의 견해도 교회의 교리가 각각 다른 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성령사역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점에서 그들의 견해들이 공통점을 이루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체험에 대한 그들의 견해 사이의 차이도 굉장히다. 미국의 개신 교회에 속한 신오순절파 사람들은 이 체험을 오순절파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들은 이 설명을 19세기의 부흥운동으로부터 배웠다. 그래서 이 체험을 성령의 회심케 하는 역사 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제이의 역사로 설명한다. 오순절운동은 그 제이의 역사를 능력과 은사를 주는 성령의 세례로 이해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수주의적 계통에 속하는 신오순절파의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체험을 설명한다.¹²⁾

9) F.D.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p. 52, A.A.Hoekema, *Tongues and spirit-baptism*, p. 31, MacArthur, *The charismatics*, p. 13, Culpepper, *Evaluating the Charismatic Movement*, p. 9, 13. C.E.Hummel, *Fire in the Fireplace*, p. 43.

10) Hoekema, *Tongues and spirit-baptism*, p. 31.

11)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p. 52, Hummel, *Fire in the Fireplace*, p. 51, P.D. Opsahl (ed), *The Holy spirit*, p. 253, Culpepper, *Evaluating the Charismatic Movement*, p. 10이하.

12) Culpepper, *Evaluating the charismatic Movement*, p. 46이하, Hollenweger, *The Pentecostals*, p. 9이하, p. 15, p. 246, Opsahl, *The Holy spirit*, p. 255.

이는 전통적인 설명이지만 유일한 설명은 아니다. 여러 다른 설명들을 들어보자. 성공회교회의 성례주의파(Sacramentalists)에 속하는 한 사람은 그의 근본적 사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자연적 통로를 통하여 자신의 초자연적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세례란 체험은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통로의 하나라는 것이다.¹³⁾

로마 카톨릭교회에 속하는 한 사람은 성령으로의 세례를,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시작 곧 세례의 성례와, 이어 성만찬의 시행 및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 계속 실현되어감의 한 부분으로 설명한다.¹⁴⁾ 이처럼 성령으로의 세례가 은혜를 주는 성례에 대한 천주교 교리와 연결되고 있음을 본다.

루터파에서 출판된 한 보고서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두 가지 세례로 설명하는 오순절파의 사상에 대한 부인이 나온다. 성령세례는 세례라는 성례와 결부되어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의 모형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세례는 성령의 충만이란 체험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독교인은 자신을 세례의 역사를 위하여 개방해야 한다.¹⁵⁾

한가지만 더 말하자면, 독일의 어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임침이나 성령세례로 성령을 받는 특별한 행동을 기대하지 않는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며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보이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는 안다."고 말한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은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각 그리스도인이 그의 은사를 자유로이 사용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모든 신자가 성령의 은사를 가진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다고 말한다.¹⁶⁾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신오순절운동 중에는 교리가 교파에 따라서 다르다. 그들에게 공통되는 것은 오직 한가지가 있다. 곧 그들이 받은 체험이다.¹⁷⁾ 이 체험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든지간에 모두가 이 체험을 가지는 것이다. 또 그 체험 자체는 신오순절파에게서나 오순절파에서 다른 것이 없다.

이 체험은 우선적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둘이 서로 관계

13) Kelsey, *Tongue speaking*, p. 130이하.

14) Ranaghan, *Catholic Pentecostals*, p. 141, Culpepper, *Evaluating the Charismatic Movement*, p. 14.

15) 그 보고서는 1974년의 루터파 교회의 회합에 제출된 것이다.

참고, Opsahl, *The Holy Spirit*, p. 257.

루터파 미주리 시노드의 신학과 교회 관계 위원회에서 채택된 1977년의 보고서에는 은사운동에 대해 앞의 것처럼 긍정적이지는 않다. *ibid.* p. 271이하.

16) Hollenweger, *The Pentecostals*, p. 247.

17)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p. 53, p. 57.

가 있고 또 성령세례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직후에나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방언을 밟했다. 이 때문에 신오순절 운동의 시초에 어떤 사람들은 이 체험이 방언을 포함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¹⁸⁾ 그러나 지금 이런 생각은 포기되었다. 이 방언의 은사를 주는 것은 성령의 자유에 속하며 방언을 받지 않고서도 성령의 충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예언이나 신유와 같은 다른 은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받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오순절 운동의 요점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한 가지 사실 곧, 성령의 특별히 오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체험을 살펴 보아야 하겠다.

4. 체험의 예들

이제 이 체험을 가진 사람들의 몇 가지 진술을 들어보자.

1) 이 운동을 시작한 D. 베네트목사의 체험

갑자기 나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분명해졌다. 완전히 분명해졌다. 그전에 삶 속에 한번도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들을 내 입술에 담아주고 계셨음을 알았다. 그분은 인도하시고 나는 그분이 하시도록 허락했다. 그는 나를 소유로 삼지는 않았다. 나는 말이 나오도록 허락해야 했고 원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그칠 수도 있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목소리를 인도하도록 했고 또 이 말들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로 만들어졌고 또 그 말들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내가 말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고 표현했다.

이와 함께 베네트목사는 이 말들이 이해되어지고 있음과 또 그의 전 영적 삶이 갑자기 새로운 위치,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실히 알았다.¹⁹⁾

2) 다른 한 성공회 목사는 대학을 졸업한 후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체험을 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그룹의 사람들이 내 위에 손을 얹었을 때 그 중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으므로 나도 매우 자유로이 울부짖을 수 있었다. 나의 경우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예수 기쁨, 예수 기쁨, 예수 기쁨”을 되풀이 했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의 몇 가지 간단한 말을 하게 되었다. 나는 참으로 감정의 풀어짐을 느꼈고 이어서 털진감을 느꼈다. 그후에 그룹기도에서야 비로소 자유롭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었다.²⁰⁾

18) 참고, 예를들어 Hollenweger, *The Pentecostals*, p. 10.

19) Kelsey, *Tongue Speaking*, p. 100.

20) *ibid.*, p. 103.

3) 몇 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한, 많은 문제를 당한 어느 남학생의 경우이다. 그는 감리교교인이었다가 그의 체험을 했을 때는 성공회교인이었다.

나는 방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때 그룹의 다른 사람들은 성령님이 나의 삶, 나의 영혼, 나의 존재 자체 속에 새롭고 진동적으로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의 위에 손을 얹었다. 존 웨슬리가 말한 것 같이 “나의 마음은 참으로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비록 그 당시에 방언하는 체험을 하자는 않았을지도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 사실을 진정으로 느꼈다. 무엇이 일어났는가? 나는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의 속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이다.²¹⁾

4) 자신을 성례주의자(Sacramentalist)로 소개하는 한 목사가 말하기를,

기도는 단순한 것이었다. 즉 성령이 더 넘치게 나의 속에 흘러들기를 간구했다. 나는 열려지고 기다리는 상태였다. 그때 그것이 일어났다. (그것이란 여자가 모형으로 계속되고 성경에서 성령 안의 생활로 불리워지는 체험이다.) 세례처럼 느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비워 냈다가 충만케 하는 것과 같은 체험이었다. 나는 “올라올 때” 방언으로 말하고 풀이도 하였다. 방언과 방언풀이 밖에도 나의 손은 가득 찬 것처럼 느꼈다. 마치 손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굉장한 기쁨으로 가득찼다. 웃음이 쉽게 나왔다. 아주 상쾌한 것이었고 그 밤에 잠들기가 쉽지 않았다.²²⁾

5) 목사인 John Osteen은 1960년에 있었던 그의 체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나의 두 손에 이상한 느낌이 왔다. 그 느낌이 내 팔의 중간쯤으로 내려와서는 진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수천 수만 볼트, 그리고 나중에는 백만 볼트나 되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내 두 손을 흔들기 시작하더니 또 끌어 당겼다. 나는 마치 봉하는 것 같은 능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이 나의 손을 점점 더 높이 끌어 올렸고 마치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잡아 끄는 것 같았다. 내 마음 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손을 병자 위에 얹어라.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그때 그는 병고침을 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한 냉방장치가 된 방 안에서, 두 손을 올린 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리워졌을 때, 뜨겁고 녹은 용암 같은 그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마치 시내처럼 부어졌고 나는 나의 밖으로 들려올려졌다. 나는 거의 두 시간 동안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다. 내 몸은 점탕 속에 있는 것처럼 땀을 흘렸다. 불의 세례였다.²³⁾

21) *ibid.*, p. 108이하.

22) *ibid.*, p. 132.

23)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p. 127.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체험에는 조용한 기쁨에서부터 인상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가 있다. 동일한 체험의 범위를 로마 카톨릭 신오순절과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

6) 앞서 한 번 제시한 Ralph Keifer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나는 조금 빠르게 방언으로 기도했다. 이것은 아주 고양되거나 장관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다. 나는 어떤 평화를 느꼈고 기도하는 마음도 좀 있었으며 또 솔직히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이를지 호기심도 있었다.²⁴⁾

7) 일주일 후에 R. Keifer가 안수하여 성령세례를 받은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세례에 있어서는, 마치 내가 커다란 바다 속으로 던져지는 것만 같았다. 그 물은 하나님이었다. 그 물은 성령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체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수년 동안 불잡으려고 했고, 또 확인하고 싶어했던 모든 일들을 재확인해 주었으므로 혁명적인 체험은 아니었다. 차이라면 다만 모든 일이 보다 쉬워지고 보다 즉각적이 되었고 또한 내면으로부터 나오게 된 데에 있다.²⁵⁾

8) 학생 시절에 체험을 하고 후에는 수학과 종교 교수가 된 David Manger의 말이다.

나는 제단 앞에서 있었는데 다음에 깨달은 일은 울부짖으며, 다시 느껴보지 못할 것 같은 황홀감을 느끼면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진 일이다. 나는 점점 더 심하게 울부짖었다. 그러나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실제적이고 너무도 가까이 있어서 온 사방에서 그를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에 암도당했다.²⁶⁾

9) 여학생인 Karin Sefcik은 앞의 Manger와 같은 시기에 받았던 체험을 이렇게 묘사한다.

장관적이고 행복했던 성령의 처음 부으심을 통해 나의 존재에 이미 퍼져있던 평화는 보다 더 깊이 확장됨을 느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보통 때 차가운 나의 손은 축축해지고 따뜻해졌다. 뜨거움은 나를 휩쌌다.²⁷⁾

10) 노틀담대학에서 공부한 Thomas Noe라는 사람은 1967년의 그의 체험을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안수 받을 때 바로 나의 가슴이 나의 머리로 올라가려는 느낌이 있었다. 나의 입술이 떨기 시작했고 나의 두뇌가 한바퀴 빙글 돌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24) Ranaghan, *Catholic Pentecostals*, p. 15.

25) *ibid.*, p. 16이하.

26) *ibid.*, p. 26. 같은 학생에 대해서 p. 29도 참고하라.

27) *ibid.*, p. 29이하.

나는 싱긋 웃기를 시작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다. 그분은 친절하게 그의 약속을 성취하였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다 가득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나와 함께 머물려 계시는 줄을 알았다.²⁸⁾

그 자신 신오순절파인 J. Rodman Williams의 말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은사운동은 성령으로의 세례란 체험과 자주 그것과 함께 나오는 방언을 많이 강조한다. 그 세례는 다양한 은사적 표현과 또 생생하고 생동적인 신앙으로의 영적 돌진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전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강한 체험을 의미한다. 생생한 성령충만의 차원으로의 진입감이 있다.”²⁹⁾

5. 이 체험이 어디로부터 인가?

이제 우리는 이 신오순절 운동을 그들의 체험 문제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겠다.³⁰⁾

첫번째의 질문으로, 이 체험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체험이 어디에서나, 어떤 종류의 교회에서나 발견되어진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루터파교회에서도 일어난다. 또한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도 볼 수 있다. 신학적으로 보수적 집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현대주의적 집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도 폭넓은 차이를 보인다.

이것을 오순절교회 자체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거기에서도 교리적 확신은 다양하다. 예정교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오순절파 사람이나,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또 삼위일체교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나, 부정하는 사람, 또 세례받을 때에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세례의 거듭나게 하는 힘을 부정하는 사람 이 모두가 다 오순절파에 속해 있다.³¹⁾

또한 신오순절운동에 있어서 성령세례의 체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연구하도록 이끌어 간다. 이 체험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28) *ibid.*, p. 67이하.

29) Culpepper, *Evaluating The Charismatic Movement*, p. 31제인용 J.R. Williams에 대해서는 Hollenweger, *The Pentecostals*, p. 310 각주 110을 참고하라.

30)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방언문제에 대해서는 Hoekema의 논의를 참고하라. (*Hoekema, Tongues and spirit-baptism*) 신유문제에 대해서는 B.B.Warfield, *Counterfeit Miracles*을 참고하라. 또 Bruner는 오순절파와 신오순절운동이 사용하는 많은 성경본문들을 취급하고 있다.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31) Hollenweger, *The Pentecostals*. p. XIX.

계속 고등비평적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독일 사람들은 이 체험을 사회참여로 이끌어 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점은 미국의 개신교 신오순절운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³²⁾

또 이 체험은 로마 카톨릭 교인들로 하여금 그 천주교 행사에 보다 즐겁게 참여하도록 이끌기도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성령이 나의 종교 체험의 모든 면을 실화시켰다. 나는 모든 성례, 특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그 성체성사를 회생제사로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전에는 그 고치는 가치를 의심했다가 다시 고해성사를 자주 행하게 되었다. 나는 마리아에게 더 깊이 헌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 전에는 나는 그것을 한번도 하지 못했다.”³³⁾

이 성령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같이 다양한 결과에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특별히 이 체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체성사를 회생제사로 보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회생제사의 최종성을 부인하도록 만든다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또 사람들로 하여금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심을 부정하게 한다면 이 또한 어찌된 일인가? 이런 체험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6. 성경에서 성령의 오심은 체험인가?

다음으로 이 체험에 대한 묘사에로 눈을 돌려보자. 사람들이 성령세례를 받았을 때, 또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언급들이 있다.

따뜻한 느낌,
넘치는 기쁨,
사랑의 충만,
자유로운 기도,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 등이다.

때로는 이들 체험은 방언과 결부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유와도 결부된다. 그러나 항상 나오는 핵심은 개인적 체험이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오심을 언급하는 본문들을 살펴보자. 성령이 오실 것의 약속은 행1:5에 나온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32) *ibid.*, p. 246 이하.

33) Ranaghan, *Catholic Pentecostals*, p. 70:

다른 예는 p. 16, 31, 37, 55, 87, 92, 98, 104 등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 본문 자체에서는 내적체험과 같은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의 상황은 마치 목자없는 양 같아서 확신이 없었고 확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생각한다. 이때에 성령이 오신 것은 확신을 주기위함이었고 의심이 있는 곳에 확실함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한다.³⁴⁾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런 것을 읽어볼 수 없다. 충분히 조직되어진 성도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 곧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선택하고 또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할 줄을 알고 있었다.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은 그들을 재확신시키는 일이 아니라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종인이 되게 하는 일이다. (행 1:8)

성령의 오심의 약속에 체험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성령이 오실 당시에 그런 체험이 묘사되고 있는가?

흘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않은 온 집에 가득 하여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위에 임하여 있더니(행 2:2, 3)

여기서 기록된 모든 것이 밖으로의 표출이다. 부는 바람의 소리, 불의 혀, 방언으로 말함 등이다. 기쁨이나 따뜻함 같은 것은 언급이 없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암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행 8:17)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와서 암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오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언급된 것은 내적 체험이 아니라 보이는 사건이다: “시몬이 사도들의 암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성령의 오심은 보이는 것이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시니(행 10:44)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는가? 본문은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밖으로 나타나는 표현만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려라.” (10:46)

바울이 그들에게 암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행 19:6)

이 기록에서 나타나는 것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만 방언으로 말하고 예

34) Ranaghan, *Catholic Pentecostals*, p. 7.

언하게 되었다는 것일 뿐이다.

이처럼 기쁨이나 따뜻함, 평화 같은 개인적 느낌은 성경에서 볼 때 성령의 오심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

7.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은 체험인가?

때때로 신오순절적 체험은 성령의 오심 대신에 일종의 성령의 충만과 결부되기도 한다. 그래서 다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에 대해 말하는 본문들을 살펴보자.

이 말이 형용사형으로 표현된 본문들이 있다.

형체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행 6:3)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택하여(행 6:5)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행 7:55)

바나바는 착한 사람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 하더라. (행 11:24)

이상 그 어디에도 이 충만이 내면적 체험과 결부되어 있는 곳은 없다. 강조되고 있는 점은, 어떤 사람이 그의 행동이나 증거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동사형으로 표현하는 본문들을 살펴보자. 오순절 사건 이전에 누가복음 1:41의 엘리자벳의 경우와, 뉴 1:67의 스가랴의 경우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두 경우에 모두 그것은 예언의 능력과 결부되어 있다. 사람이 그 자신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알고 말한 것이다. 이 표현은 또 뉴 1:15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례요한의 경우에도 사용되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체험을 가리키지 않으며, 오히려 요한의 예언적 직무를 나타내는 것 같다.³⁵⁾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는 표현은 여러번 나타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4)

여기서 이 표현은 예루살렘에서의 모임이 방언을 말한 사실과 결부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행 4:8)

성령의 충만은 베드로로 하여금 산헤드린의 권세자들 앞에서 자유로이 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능력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막 13:11의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꼭같은 일을 같은 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31) 아니나마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행 9:17)

바울의 체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다만 그 사실만이 알려져 있다. 그 성령의 충만은 바울이 복음전도하는데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³⁶⁾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행 13:9)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결과로 엘리마스의 마음을 알고 그에 대하여 예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표현과 관련하여 내적 체험을 말하고 있는 본문을 찾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언급이 한 번 나오는 것 같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행 13:52)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의 앤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48절) 그때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물아내려 하였고 성공할 수 있었다. (50절) 52절에 언급된 제자들이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다음에 앤디옥에 혼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다. 동사의 시제(미완료형)를 볼 때 상태를 의미하는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앤디옥의 신자들은 이미 기뻐하는 사람들이었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52절이 강조하는 점은 사도들이 떠나더라도 신자들이 슬픈 사람들이 되지 않았고 더 중요한 사실로써, 성령님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성령님의 거하심은 사도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기쁨을 갖는 삶이란 사실이지(참고, 갈 5:22, 빌 4:4) 성령의 충만을 받는 순간에 체험하게 되는 내적 기쁨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을 담고 있는 마지막 구절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되라. (엡 5:18)

이 말의 배경에는 애베소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1:13) 여기 나오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로서 바울이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이 계속 그 성령으로 가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령은 그

35) 참고, 예를들어 I. Howard Marshall, *The Gospel of Luke*, p. 58.

36) 참고, F.F.Bruce, *The Book of the Acts*, p. 201:

들을 완전히 다스려야 한다. 성령을 삶의 어떤 영역에서 배제해 버리거나 그분의 영향을 막아 버려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그 후에 바울은 그것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³⁷⁾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 본 성경의 어디에도 성령의 오심과 충만케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체험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곳은 없다.

8. 체험에 근거된 확신의 문제

신오순절적 체험에 관해 언급할 마지막 문제는 이 체험의 결과이다. Egertson이란 목사는 그의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한다.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시고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다는 세로와전 의식이 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고 또 하시려고 하였다면 그는 그의 말씀 가운데 약속한 다른 일들도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이다.³⁸⁾

우리는 이런 류의 표현을 신오순절 책자들에게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꼈다.

나는 오순절 사건을 믿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직접 그것을 보았으니까³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런 투로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상은 성경적 교리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자신을 거의 만져질듯이 임재하신다는 말은 성경적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 (요 1:18, 롬 1:18이하, 딤전 1:17, 6:15, 16)⁴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경은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오르셨다고 강하게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진실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음을 확신시켜 주셨다. (특히 뉴 24:36 이하, 요 20:24이하) 그러나 그가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남겨진 원칙은, 요 20:29과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37) 참고, H.A.W.Meyer, *Brief an die Epheser*, p. 232, Hoekema, *Tongues and Spirit-baptism*, p. 84이하.

38) Kelsey, *Tongue speaking*, p. 115.

39) 예를 들어 Ranaghan, *Catholic Pentecostals*, p. 40, 58, 79, MacArthur, *The Charismatics*, p. 59, 60, 64.

40) 행 17:27은 신오순절 체험을 증명하는데 사용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본문이 신자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하신 것이다.

그가 승천하신 후에 세 번 그는 보이셨다. 한 번은 스데반에게(행 8:56), 그리고 바울에게(행 9:4, 22:14, 18), 그리고 요한에게(계4) 보이셨다. 사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행 10:41) 우리는 중인들의 말씀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참고, 벤전 1: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내가 보기에는 신오순절운동의 진정한 위험은 여기에 있다. 곧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과 반대된다. 히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특징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히11장의 내용은 구약의 신앙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신앙은 소망과 관계된다. (롬 8:24)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체험에 근거해서는 안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한다. (요 17:20, 요일 1:1~3) 다시 한 번 말하자면, 교회는 우리 체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및 머릿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기초한다. (엡 2:20)

9. 맷음말

결론은 간단하게 지을 수 있겠다: 우리는 신오순절 운동이 말하는 것과 같은 성령의 체험을 촉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결론에 몇 가지를 더 첨부하고 싶다. 신오순절파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특출하게 눈에 띄는 이런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다. 곧 “나는 기도했지만 나는 인격적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못했다.” 또는 “나의 신앙생활은 메말랐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신앙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또는 “나는 나의 신앙 가운데 아무런 기쁨도 맛보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다.

이런 느낌들은 그 자신이나 그가 속한 교회에 펴져 있는 일종의 지적 합리주의에 기인하는 수가 많다. 이 사실 곧, 교회가 지적으로만 교육했다는 사실이 정말이라면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신오순절 운동에 매력을 느낄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찾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르침받은 메마른 합리주의를 활성화시킬 체험이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체험을 촉구하는 것이 잘못임을 보았다. 또한 합리주의에 신오순절 체험을 덧붙여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잘못된 합리주의 위에 잘못된 체험을 덧붙임으로써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바른 견해를 얻는 대신 두 가지 잘못된 견해를 얻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합리주의적 교육 때문에 실수가 생겨나는 것이라면, 이것은 체험을 강조함으로써 고

치려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반을 바꿈으로써 고쳐야 할 것이다. 복음은 우리로부터 먼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의 임무는 무엇인가?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로부터, 또 성령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가르침은 전인(全人)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그의 사고, 의지, 감정, 행위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다.

몇 가지 예를 들겠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설교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깨닫는 모든 사람은 놀라게 되고 친양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는 단순히 사람의 죄를 논리적으로 제시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관한 일이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겸손해 질 수 밖에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벌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게 되겠는가.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 성령의 오심이 과거의 지난 일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성령사역의 결과를 우리 손에 들고서 그것을 읽기를 즐겨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다 주의깊게 듣고자 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이것은 큰 위로이다. 왜냐하면 우리 죄와 대항하여 싸울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며 싸우고 계시는 것이다.

신오순절 운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한 내용을 향해 활짝 열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도서

- Bruce, F.F., *The Book of the Act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repr. 1984)
- Bruner, F.D.,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The Pentecostal Experience and the New Testament Witness* (Grand Rapids: Eerdmans, 1970)
- Culpepper, R.H., *Evaluating the Charismatic Movement. A Theological and Biblical Appraisal* (Valley Forge: Judson Press, 1977)
- Hoekema, A.A., *Tongues and Spirit-baptism. A Biblical and Theological Evalu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 Hollenweger, W.J., *The Pentecostals. The Charismatic Movement in the Churches*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2)
- Hummel, C.E., *Fire in the Fireplace: Contemporary Charismatic Renewal*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80)
- Kasper, W., (ed) *Gegenwart des Geistes. Aspekte der Pneumatologie*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79)
- Kelsey, M.T., *Tongue Speaking. An Experiment in Spiritual Experienc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4)
- MacArthur Jr., J.F., *The Charismatics. A Doctrinal Perspective* (Grand Rapids: Zondervan, 1978)
- Marshall, I.H., *The Gospel of Luke.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Exeter: Paternoster Press, 1978)
- Meyer, H.A.W., *Brief an die Epheser* (KEK;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859)
- Nichol, J. Th., *Pentecostalism* (New York. Evanston. London: Harper & Row, 1966)
- Opsahl, P.D. (ed.), *The Holy Spirit in the Life of the Church from Biblical Times to the Present*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8)
- Ranaghan, K. & D., *Catholic Pentecostals* (Paramus N.J.: Paulist Press, 1969)
- Warfield, B.B., *Counterfeit Miracles*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6)